

## 영경귀의 章

메파아트의 지하층같은, 데서 꽃묶음을 보다가 현(顯)은 난데 없이 당황하는 때가 있다. 새빨간 서양 영경귀의 노기를 품은 듯한 드센 모양에 아내의 얼굴이 겹쳐오기 때문이었다. 장식단추처럼 작게 불타며 들쭉하게 자리잡고 있으면서 어딘지 모르게 화려하고도 분방한 꽃봉오리는 거기에 그대로 아사미(阿佐美)의 인상을 의탁하고 있는 듯 생각되었다. 서둘러 집에 돌아가 다다미 방바닥에 등글등글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놓이는 것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있었구먼. 나가지 않았는가 해서 서둘렀는데.」

「바람맞힐까봐 당신 늘 걱정인거죠. 호주머니가 이렇게 가벼워 서야 거리엔들 나갈 수 있어야죠.」

「지친 얼굴을 하고선 때만을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눈초리란 말야, 언체나. 허지만 좋다. 그때는 그때 대로. —꽃을 사가지고 왔지. 당신이 좋아하는 영경귀.」

「당신답지도 않게. 귀엽구 깨끗하네요.」

아사미는 일어나 다발채 단지에 꽂고는, 다다미 바닥에 덮어둔 책 있는 데로 돌아왔다.

「온종일 독서삼매예요, 이 한달 동안 꽤 읽었네요. 책꽂이의 소

설들 대개 읽었어요?」

「지금같은 때 열심히 공부해 두는 게 좋아. 이러다가 곧 내가 들어박혀 있게 될지도 모르니까. —신문이 아무래도 안될라 나와.」

「끝내 폐간이 되나요?」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던 터라 그녀도 생각보다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이다.

「우리 신문사뿐만 아니라 이 겨제에 두세 사를 함께 문닫게 할 모양인데, 시국에 따르는 것이라면 할 수 없지. 아마 이달 한달 이면 그만일거야. 별수없지. 다시 한번 무직자로 되돌아가는 거지.」

「당분간 휴양할 수 있어서 당신한테는 되려 잘된 일인지 모르죠. 아무 일 없어도 힘든 때가 많은데 편집하는 일은 이것 저것 힘든 일인 모양이죠.」

「안간힘을 써봤자 별수 없지. 당신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해.」

「무슨 수가 있겠죠. 사람의 일인데요 뭐.」

아저씨나 그렇듯 그녀의 낙관론이 이런 경우 조금은 기분을 돌려 주고는 했지만 현은 침울해지는 기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딘지 모르게 섬약하고 늘 잔병이 떠나지 않는 아사미에게 가정에 들어앉아 여자로서의 편안함을 맛보게 한 것도 겨우 반년밖에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남자로서 너무나 듣직하지 못한 게 가슴을 찢었다. 곤로에 알코올을 부어 얼마 남지 않은 코오피를 끓이고 있는 바지런한 손놀림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는 정말로 끌려 있다. 끌려 있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살림에 하룻들 전될 수 있을 리 없지 하고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었다. 정열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저돌적인, 그 광적인 발작 비슷한 격

정이 용케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현에게는 이상한 느낌조차 들었다.

처음 있었던 일의 기억부터가 그러했다. 아직도 오싹 추운 비 오는 밤에 아사미가 근무하고 있는 술집에서 현은 사오 명의 회사 동료들과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안개인지 버릇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냉습한 것이 창 틈으로 흘러 들어와 다른 손님이 없는 텅 빈 방안은 냉기를 머금어 다들 추위에서 피하려는 듯, 거꾸거꾸 술컵을 거듭하는 사이 완전히 흥금을 털어놓고 말았다. 목욕에서 막 돌아온 아사미도 드물게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줘 때 부분 전에는 술잔을 물리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진해서 활기 좋게 잔을 비우는 것이었으나 금방 화장 전의 맨살이 빛을 띠고 동그란 눈동자가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무대에 서서 각광을 받았을 때처럼 요염하리만큼 젖어서 빛나는 그 아리따운 눈동자를 현은 그날밤만큼 아름답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스으쓰 아래 포개져 있는 맨다리는 수액을 머금은 푸른 나무의 살결처럼 싱싱하고 작은 발이 우유빛으로 향긋했다. 아사미는 주변에서 대단한 평판을 받는 편이었다.

물론 장난기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던 탓이었을 것이다. 흔히 취한 힘을 빌려서 터무니 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때가 있다.

「아사미를 차지하는 녀석은 어떤 복있는 놀일까? 난다진다하는 거리의 멋쟁이들이 우쿨우쿨 모여와서 집적대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새침 빼고 있으니 도대체 의종의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나가 말을 꺼낸 것이었다.

「그게 알고 싶어요? 당신이 아니라서 미안하네요.」

아사미가 서슴없이 응수하는 바람에 말을 꺼낸 친구가 오히려 수세에 몰린 꼴, 졌다 하는 시늉으로 얼굴을 숙인 채 뒤통수를

한 손으로 평하게 두들기며 잔뜩 찌푸린 상을 하고 있다가는 바로 새빨개진 얼굴을 대뜸 쳐들었다.

「그렇게 잘라 말해 버리면 사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나. 내가 아니어서 안심이지만. —그럼 이 우리 한패 중에는 없단 말이 어?」

「천만에, 있어요.」

「있어? 누 누구야 누구란말야?」

「아직 말할 수 없어요.」

「비겁하다, 겁쟁이. 왜 말할 수 없나. 언제까지나 애태우지 말고 빨리 말해 주는 편이 다른 친구들도 단념할 수 있고 자네도 그만큼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아냐?」

「서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들의 일인데요 뭐. 걱정도 팔자.」

아사미가 눈꼬리에 미소를 머고 가슴에 두 팔을 낀 채 침착해 있는 것을 보자 친구는, 좋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하게 만든다, 한번 꺼낸 바에는 누구에게 행운의 화살이 꽂히는지 이 눈으로 지켜봐야 겠다」라고 용을 쓰면서 비틀비틀 일어섰다.

「기찬 생각이 있다. 신발명의 방법이야. —이렇게 해 줄테니, 사양할 건 없어. 좋아하는 그녀석 목덜미에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보다 나은 간결직재한 표현은 없다. 자고로 사랑은 어둠을 선택하는 모양이니까.」

무슨 짓을 저지르려는 심보일까 하고 모두들 망연하게 앉아 있는 동안에 술술 벽쪽으로 가까이 갔는가 했는데 순식간에 방안은 째깍한 어둠으로 변했다. 스위치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꺼려할 건 없다. 자 상대를 고르는거다. 대답솔직한 것이야말로 새 시대의 성격이 아니냐.」

「좋아요. 골라 주죠.」

취해 있는 것은 사내들뿐만이 아니었다. 아사미의 상기되어 들

며 있는 어투도 결코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위험한 한때였다.

모두들 그랬을 것이다. 현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마른침을 삼키면서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무엇인가를 잔뜩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그리하여 어둠 속에 쑥 움직이는 아사미의 그림자를 확인한 순간 느닷없이 얼굴에 뜨거운 숨결을 느끼고 뜨끔했던 것이었다.

「오해하지 말아요. 난 취하지 않았어요. 이전 오래전부터의 기분이예요.」

간지러운 속삭임에 현은 온 몸을 기분 좋게 빨리는 느낌이었다. 진정한 고백치고는 지나치게 당돌하고 대답했다.

「반평생 걸려서 오직 당신 한 사람 찾아낸 거예요. 조롱하지 말아줘요. 난 지금 울어도 좋아요.」

「고맙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지.」

말을 마치자마자 등불이 반짝 켜져 방안은 전대로 밝아졌다. 묘한 꼴이 된 두 사람의 모습에 눈이 부시듯 눈을 깜박이면서 그러나 원망스러운 것 같지는 않고 친구는 명랑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랬나, 그랬나, 그랬었구나. 야! 미안했다.」

다음 날부터 현과 아사미는 바로 아파아트의 방 하나를 빌려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신문사에서 응분의 우대를 받게 되자 아사미는 술집을 그만두고 지금의 작은 집을 빌려서 둘만의 꿀같은 단란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사미의 걱정에는 기록도 많았지만 반년 동안의 안온한 생활이 현에게는 희귀한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리를 어정거리면서 문득 아사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저도 모르게 당황해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언젠가

는 무슨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을 은연중에 기다리는 기분과 같은 것이었다…….

달이 바뀌어 끝내 현이 직장에서 떨어져나고 보니 길은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나 다시 한번 일하러 나갈래요.」

아사미가 옷을 차려입고 조용히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현은 말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제와서 새삼 미안하다 용서해라 하고 말할 수도 없었다.

단독주택을 차지하고 사는 것도 분에 넘치는 것 같아서 아파아트로 되돌아갈 의논을 꺼내자 아사미는 간단하게 찬성했다. 어느덧 조금씩 수가 붙어난 헤접쓰레기를 이끌고 또다시 좁은 방으로 되돌아 가야만 했다. 아사미가 간단히 찬성한 때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골목 안의 독채에서는 즐거운 기억만이 아니라 가시가지 치욕의 추억까지도 강요되었던 것이다.

저녁때 같은 때 골목 입구에 접어들면 그 근방에 어정거리고 있는 여편네들의 시선은 정해놓고 집요하게 아사미쪽에 집중되었다. 역시 웃음을 띠거나 가볍게 인사를 하거나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한 비천한 눈초리가 아사미의 신경을 어디없이 찢러대고, 남의 일은 왜 모르는 체하고 내버려두지 않는가 하고 이웃 사람들의 염치없는 비례에 성이 나 있었다.

아파아트는 좁은 대신에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해심도 있어서 그러한 정신적 고통이 덜해서 아사미는 속이 시원할 정도였다. 이삼일도 안되어 이웃방에 사는 역시 어디 빠아옴가 나가고 있는 듯한 젊은 여자와 친구가 되어 저녁때 가게로 나가는 시간이 갈을 때는 나란히 아스팔트길을 걸으면서 터놓고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혼자니까 마음은 편하지만 그대선 무척 쓸쓸할 때가 있어요.」

미도리상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아사미에게는 가련할만큼 실감있게 울려 왔다.

「나는 그 반대.——쓸쓸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편치가 않아요.」

아사미는 활짝 웃어보이고는,

「그럼 자주 방에 찾아오는 남잔, 그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구 말구요. 난 이래봐도 무척 전설해요. 그 사람에겐 아직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짝이 되어 살 수 있을 때까지는 깨끗하게 하고 있고 싶어서.」

그 말에 아사미는 충격을 받으면서, 좋겠네요 하고 일종의 감동조차 느끼고 있었다.

「일자리는 힘들고, 올바른 결혼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적당히 한몸이 되어 질질 끌려가는 것은 싫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부모가 허락할 것 같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사미는 자기네들 사정과는 매우 닮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미도리상의 착실한 기백에 압도당하는 꼴이었다. 역시 현의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채로 질질 그대로 간단히 지금에 이른 것이 언제까지나 원망스러운데, 지금 미도리상네 경우를 듣고 있으니 너무 쉽게 걱정도 몸을 맡기고만 자기의 무모함이 새삼스럽게 후회스러워 전될 수 없었다. 어엿한 식도 올리고 싶었고 호적에도 넣어 주었으면 하기도 바랬다. 여자로서는 그것이 생애의 최대의 표지였다.

「나도 벌써 스물 넷이에요. 언제까지나 우물거리고 있을 수 없

게 됐어요.」

「힘을 내요. 틀림없이 잘될 거예요. 당신처럼 그렇게 착실하게 하고 있으면.」

스물 넷이라면 아사미보다 두살 아래였다. 그 젊은 또래의 전고한 마음가짐에 아사미는 머리가 숙여지는 생각이 들고, 가게가 파하고 밤 늦게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하루의 피곤도 겹쳐 아직 일어나 있는 현에게 불쑥 짜증도 부리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난 정말 경솔했어. 언제까지나 이래로라니, 아이 시시해.」

「뭐야. — 피곤하다 이거지.」

「이웃의 미도리상 말예요. 여간 단단하지 않아요. 식을 올릴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응, 그런 일이야?」

「그런 일이라니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말아요.」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난들 부모한테는 정이 떨어졌어. 다사는 집에 들어가지 않을꺼야.」

「누가 나쁘단들 마찬가지예요. 당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노력했죠?」

「그처럼 중요한 것이라곤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 식이니까 틀렸어요. 남의 일생을 병신으로 만들거예요?」

아사미의 격해지는 말투를 만나 그녀의 고민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을 알자 현은 다음날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짧은지 오래된 부모한테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애초에 집을 등지고 위태로운 독립을 시작한 것도 아사미와의 일로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었던만큼 지금에 와서 새삼 그 반대를 꺾고 뜻을 뒤집어 놓는다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십년 가까이 관직에 몸을 담았던 터이기는 했지만 옛 가

질로 완고하게 굳어진 아버지에게 현 등의 분방한 행동은 제멋대로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고 오류의 정도를 장황하게 설득하면서 현의 격차가 심한 혼인은 정상이 아니라는 까닭을 타일러 말하는 것이었다.

현이 올바른 결혼을 할 때까지는 장유의 질서로서 나이 든 아우나 누이들도 출가할 수 없다는 것, 아버지는 그것을 큰 방패로 삼아 모든 책임을 현 탓으로 돌려 몰아부쳤다. 물론 그러한 뒤에 숨어 있는 하나의 심통을 알고는 있다. 명문 집안으로 문벌이 무척 높은 한 아가씨의 이름을 아버지가 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현은 누이동생의 입을 통하여 자주 듣고 있었다. 쓸데없는 것은 집어쳐. 요즘 그런 것 꼬치꼬치 따진다는 게 얼마나 시시한 건지 아니 하고 일언지하에 물리치며 혼을 낸다. 그러면 누이는 난 몰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열심이라는 것 뿐이죠 하며 슬쩍 피해버린다. 그러한 골치아픈 분위기에 구역질이 나서 분연히 집을 뛰쳐나온 것을 시작으로 그 후 되도록 근접하지 않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아사미가 가게에서 돌아온 시각까지도 현은 아파트에 나타나지 않았다. 방 열쇠는 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사미는 할 수 없이 미도리상네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한 시경이나 돼서 고요히 잠든 복도에 발소리가 나고 현이 그제사 돌아왔다. 몹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아사미가 뛰어나가 맞이하자 문클 익은 감 냄새가 나고 눈초리도 몽롱한 곤드레만드레의 꼴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팽하고 닫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화가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있었어요?」

「좋은 데서 마시고 왔지.」

「능청스럽게 굴면 용서 못해요.」

「난들 가끔은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지 않나? 영감하고 말다툼을 했어. 그래서 난 처음부터 가기 싫다고 했잖아.」

「여보, 그게 언제나 하는 말투예요. 그 말을 하려고 다녀오는 거나 다름없어요. 양반집 색시를 보란 듯이 골라놓고 있어서 그래서 기뻐서 마셨다는 것예요?」

「멋대로 말하면 나도 성낼거야. 남의 마음을 몰라주고 막말을 하지마.」

「고약한 냄새. 저리 가요. 또 마늘을 먹었군요.」

「용서해라. 그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자연 손이 가지는걸. 할 수 없어.」

마늘소동은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현은 가끔 몸에 이상이 생겨 향토요리가 먹고 싶어 그때마다 심한 냄새를 지니고 돌아오곤 했다. 그것이 아사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기호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살짝 먹고 와서 아사미의 코를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때가 더러는 있었지만 대개는 민감하게 냄새를 맡아 알아채게 되어 언짢은 경우가 되곤 하였다. 어쩔 수 없는 숙명하고도 같은 것이었다.

「아이 원통해. 울고 싶어져요.」

신음하듯 중얼거리고 아사미는 현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며 방에서 나갔다. 멍하고 있는 사이에 복도의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지고 주변이 몹시 조용해질 때, 현은 비로소 정신이 들어 이런 한밤중에 어딜 가는 거야 하고 조금은 당황한 마음으로 뛰쳐나가 보았지만 아사미는 이미 어디론지 아파트를 나가버린 뒤였다.

다음날 하루 종일 거리를 찾아다녔지만 행방을 알 수 없어 현

은 저녁때 근무가 시작되는 시각을 기다려 뺨아에 가서 겨우 아사미를 찾아냈다.

다른 여자들이 둘 사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은 계면쩍어 그 가게에 가는 것은 삼가하고 있는 터였으나 그것을 알아차린 듯 아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백을 내주면서 아파아트로 돌아가라는 눈짓을 하였다. 무언 속에 간단히 화해는 이루어졌던 것이다.

방에 돌아와 무심코 핸드백 속을 들여다 보니 한장의 청결한 종이쪽지가 나왔다. 호텔의 계산서였다. 고급스런 용지에 일금 칠원이라는 하루 저녁의 방값이 기입되어 있었다. 현은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으면서 아사미의 화사한 기질을 가슴속에 반쫓해 보았다.

「제기, 호텔에 묵었구나. 호사스런 녀석야.」

밤, 아사미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 있었더니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안겨들어 미친 듯한 정열을 쏟는 것이었다.

「화났어요? 화내지 말아요. 나 어제 하룻동안 기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취했었어. 친구들과 화집에 술을 퍼마셨거든.」

「새삼스럽게 결혼식 같은 거,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 부모들이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마늘을 먹어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인걸요. 나도 애써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하겠어요.」

차분한 어조를 드문 것이라 생각하면서 현은 그녀의 부드러운 눈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다만 난 슬퍼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를 둘러싸고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세상이란 심술궂고 냉담한 것이군요. 이대로 가다

가는 싸워나갈 수 있을런지, 모조리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단단히 마음먹지 않으면 안돼. 그런 것이거나 하고 다들면 되는 거야. 세상은 우리들을 위해 호락호락하게 돼있지 않으니까.」

「당신이 좋아. 누구보다도 좋아. 그래서 화를 내고도 싫어지고 슬퍼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쩐지 슬픈 결말이 될것 같아서, 그것이 전될 수 없어요.」

난폭한 격정의 분출이었다. 현 쪽이 절절 땀 정도로 폭풍과도 같이 격렬해서 그런 때만은 슬픔도 거리낌도 망각 속에 묻히고 마는 것이었다.

활짝 개 일요일이 마침 노는 날이어서 현은 아침부터 아사미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마음 편히 들어서 걷는 것도 오랜만이였다. 가을 햇살이 빛나고 하늘은 바다와 한빛, 아사미의 짙은 물빛 차림에도 하늘빛이 옅어 비친 듯한 느낌이였다. 아사미는 한복으로 차려본 것이였다.

현의 요청으로라기보다도 자기가 좋아해서 무엇보다도 한복을 사랑했다. 가게나 아파아트에서는 일본옷이나 양복으로 배우지마는 현과 들어서 나들이할 때에는 그 향토의 의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저고리 아래 치마 주름이 잘게 접혀지고 그 치마폭 아래로 뻗은 다리모양은 양복을 입었을 때보다 더 화사했다.

「세 종류의 복장 중에서 난 역시 이것이 제일 좋아요. 몸매의 이쁜 점이 구석구석 다 잘 나타나거든요. 」

아사미는 몸매에 자신이 있었던만큼 그날의 차림새가 자랑스럽기 그지 없었다. 그 즐거운 듯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란히 걷고 있으면 현은 문득 묘한 착각이 생겨, 아사미가 일본옷을 입었을 때와는 딴 사람이 된 듯한, —가까이들 오고가는 똑같은 의상을 입은 여자들과 같은 혈연의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었

다.

지금 자기와 걸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의 아사미가 아니라, 새로 바뀌 태어난 다른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뚫어지게 돌아보려는 한 점의 어색함도 없이 번듯하게 잘 익숙해진 그녀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조용한 거리를 빠져나가 두 사람은 차차 사람들이 물려들기 시작한 덕수궁의 뜰안에 발을 들여 놓았다. 하얀 길 양쪽에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의 잎이 상쾌하고 넓은 잔디밭에서는 남은 푸른빛이 선명하게 젖어 있었다. 연못의 부수는 차디차게 햇빛에 빛나고 배경인 백아의 박물관도 그것 때문에 차디차게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다. 아사미의 화사한 모습은 그 뜰 가운데에서 더욱 돋보여 현은 자랑스럽게까지 느끼면서 한 점 모자람이 없는 사랑의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이렇게 옛날 그대로의 고풍스런 건물 사이에 서 있으면 나도 아의상대로 이 땅에 태어나 여기서 자라난 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행복감 속에서 이대로 슬쩍 꺼져버리고 싶을만큼.」

「그런 기분을 짓밟고 박해는 언제나 외부로부터 닥쳐오거든.」  
「언젠가 한번 비원에 데려다줘요. 옛날 궁인들이 소요했던 그 우아한 자연 속을 조용히 걸어보고 싶어요.」

「좋지, 어디서든 당신은 틀림없이 아름다울 거야, 옛날 왕비처럼 기품있어 보일걸.」

박물관 안을 죽 한번 훑어보고 뒤편의 정원에 들어가니 아이들 놀이터에는 어머니들의 손에 이끌려온 어린애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고, 누우렇게 물들기 시작한 등나무 시렁 아래에도 사람 그림자가 하나 둘 언뜻언뜻 움직이고 있었다. 새들을 키우고 있는 철상 앞의 사람매 가운데 섞여 구관조의 동그란 발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했더니 미호효상 아냐.」

높직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양복 차림의 중년 사내가 뺨글뺨글 웃음을 머금고 서 있었다.

「너무나 뒷모습이 근사해서 뒤를 밟아왔는데 당신인줄 알고 깜짝 놀랐어. 참 잘 어울리는 한복이군. 걸작이야.」

미호효는 가게에서 통하는 아사미의 이름이었기에 사내는 어쩔 건 가게에 오는 손님의 하나임에 틀림없었다. 그 방자한 어딘지 천박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어 중인의 환시 속에서 아사미는 어쩔줄 몰랐다.

「그렇게 무례하게 고향지르지 말아요. 불상 사납지 않아요.」

「아냐, 너무 보기 좋아서 감탄삼탄인데. 왜 가게에서 입지 않지. 인기가 대단할 텐데. 틀림없어. 당장 내일밤 부터라도 시험해 봐.」  
아사미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자 아직도 못다한 말이 있는 듯 사내는 뒤쫓아왔다.

「미호효상, 실례가 될 질문인지 모르지만 당신 혹시 여기 태생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잘 어울릴 리가 없잖아.」

「별꼴 다 보네. 언제까지 이렇게.」

아사미가 눈에 칼끝을 세워 성을 냈을 때 현도 참다 못해,

「야, 그만둘 수 없어, 왜 그렇게 칩칙한가.」

라고 소리치고 말았다.

「너는 누구냐?」

사내도 얼굴빛이 변했지만,

「아사미는 내 아내다.」

라는 말을 듣자 웃음을 머면서,

「그래, 미안. 그런줄도 모르고.」

사과한 것은 좋았는데 아사미 쪽으로 돌아서서,

「미호효상두 사람이 나빠요. 이렇게 어엿한 주인이 있으면서

가게에서는 켜새도 안보이고 모두에게 몸달게 해.」

현은 확 치밀어올라 손을 불끈 쥐고 앞으로 덤비는 자세를 취했으나,

「괜찮아요. 내버려둬요.」

아사미가 말리는 바람에 미워 죽겠다는 눈초리로 상대를 노려보는 것으로 그치고 아사미와 더불어 재빨리 그자리에서 멀리 물러났다.

「또 마시려 갈거야. 다시 한번 그 한복 모습을 보게 해줘.」

뒤에 남은 사내도 지지 않고 묘하게 심통스러운 말을 남기고는 반대방향으로 걸어가 버리고 말았다.

모처럼 가진 한가로운 기분도 망가지고 말아 불유쾌한 느낌을 어찌할 바 몰라 서둘러 아파트에 돌아오자 아사미는 울고만 있어 방바닥에 엎드리고 말았다. 다음날도 일어나는 것이 겨워서 그대로 이삼일 누워 있는 동안에 진짜로 병이 나고 말았다.

「가게같은 거 그만둬도 돼. 퇴직수당도 조금은 남아 있고, 그러는 동안에 나도 어디 자리가 날 듯도 하니.」

「그런 푼돈 금방 바닥나고 말아요. 가난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걸요.」

「언제까지나 고생시켜서 미안해. 정말 어떻게 될 듯하니 그만 두고 쉬는게 좋아.」

아사미의 몸을 아껴주는 것으로 현의 감정은 가득차 있었다. 단단히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자기의 우유부단함을 실컷 나무라기도 했다.

아주 가벼운 감기 기운이었기에 한주일쯤 지나자 아사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히 일어났으며 방안에 하루종일 들어박혀 있는 것도 지루하다고 또 가게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타



성이라고나 할까, 현이 굳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시각이 되면 아무렇지 않게 나갈 차비를 했다.

「진이 다할 때까지는 일하겠어요. 세상놈들과 싸워 나가야죠.」

「싸우는 건 좋지만, 언제나 당하는 건 이쪽이 아냐. 불유쾌한 꼴을 당하고 또 기진맥진해도 난 몰라.」

「그때는 그때대로. 될대로 되라죠.」

라고 말을 했지만 며칠이고 나가지 않다가 어느날 밤 가게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돌연 취한에게 쫓겨 기다시피 방에 당도했을 때는 별수없이 전신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금방 울음을 터뜨릴 듯 당황했으며, 현은 현대로 내가 뭐라 하고 나무라면서도 측은하게 여겼다.

「언젠가 그놈이에요. 덕수궁 뒷동산에서 치근치근 굴던 그녀석.」

「아직 거기 우물거리고 있나. 다리를 분질러버리고 말테다.」

현은 서둘러 밖에 나가 보았지만 취한의 모습은 벌써 어디에도 없었다. 여기저기 훑어보고 거리를 잠시 배회해 보아도 조용히 잠든 거리의 어디에도 그림직한 사람 그림자는 움직이고 있지 않았다. 방에서는 아사미가 아직도 두근대는 가슴이 가라앉지 않은 듯 옷도 갈아입지 않고 책상 앞에 기대어 있었다.

「그놈이 오늘밤 일찍부터 가게서 마시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에 매섭게 물어부치니까 언제까지나 주정을 부려서 혼났어요.」

「어쩌자는 건가. 더러운 자식.」

「나보고 지금 행복하냐는 둥, 일본에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는 둥, 그밖에 당신한테는 말할 수 없는 당치 않는 말을 지껓기는 거예요. 통 대거리 않고 경멸해 주었더니, 양갈음으로 거리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어디서부터지 끈질기게

뒤를 밟고 와서 자칫 잘못했으면 붙잡힐 뻔 했어요.」

「당신에게 인생의 선택을 잘못했다고 충고할 심산인 게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그런 도배야.」

「원통하기 짝이 없어요. 그놈의……」

「한 사람에게 복수한들 뭐가 돼. 그런놈들은 얼마든지 뒤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니까. …… 어때 이젠 질렸지. 다시는 일하려 간다는 말 안하겠지.」

한탄해본들 도리가 없어서 현이 도리어 대범하게 웃기 시작하자 아사미는 웃을 일이 아니예요 라고 말할 듯이 날카롭게 흘기고는 그대로 구르듯 다다미 위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번만은 아사미에게도 결심이 서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가게를 그만두고 말았다. 매일같이 이십사시간을 현과 얼굴을 마주 대게 되어 이것저것 말다툼이나 자잘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번동 번동 뒹굴고 있던가, 아무 근심없이 거리를 거닐기도 하면서 집을 마련하고 살던 때의 거리낌없는 생활로 돌아가 기분이 느슨했다. 초조한 것은 현 쪽이어서 예금통장의 내용이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것을 보면 불안하지만 하여 직장을 찾아 열심히 거리를 쏘다녔다. 현이 없는 낮 시간을 아사미는 미도리상과 같이 산책을 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하여 그 손아래 친구의 젊디 젊은 희망 속에서 마음까지도 부풀 듯한 따뜻한 것을 느끼기도 하였다.

어느날 힐끗 방안을 들여다보니 마침 언제나 오는 남자가 와 있어서 소곤소곤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아 급히 돌아서려는 것을 미도리상한테 굳이 끌려들어가 처음으로 그 연인이라는 사람을 소개 받았다.

「우리도 오랫동안의 소원이 이루어져 몇몇한 결혼을 하게 됐읍니다.」

문학을 하고 있다는 얼굴이 희고 키가 가냘프게 큰 그 사나이

는 도수가 높은 근시안경 속에서 가는 눈을 깜박이면서 웃음을 띠었다.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습니다.」

「이 양반 그야말로 일편단심였어요.」

미도리상도 도리없이 웃음을 누를 길 없어 아사미의 눈앞이라는 것도 가리지 않고 사랑스러운 듯 연인을 정답게 쳐다보고 있었다.

「——부모 앞에서 비수를 뽑아들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위협했대요. 눈에는 눈물을 가득 찰우고요. 외아들이 소중한데 그렇게도 완고했던 부모도 항복하고 두말 않고 승낙했어요. 어때요. 가냘퍼 보여도 꽤 대단하죠.」

익살스런 말에 아사미가 웃음을 터뜨릴뻔할 만큼 순진한 미도리상의 기쁨은 대단했다. 그 외곶의 진실성에는 웃을 수가 없었다. 그대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

「목숨을 건 연기를 했습니다. 부모란 뜻밖에 무른 것이어서 도리어 나한테 절이라도 할뻔한 정도였습니다. 첫째 소망이 이루어지고 보니 이제부터는 문학 공부에도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외에 작은 집을 진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나도 발을 빼고 내달쫄 식을 올릴 거예요.」

「참 좋은 일이에요. 착실하게 잘해요.」

두 사람의 순진한 정열이 부럽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하여 아사미는 그 이상 무엇이든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방에 돌아와 아직 현이 돌아오지 않은 혼자만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지나 벌써 깨끗이 씻어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슬픔이 또다시 가슴에 치밀어 왔다.

쓸데없는 미련같은 건 말끔히 잊어버리고 싶다고 소망하지만 한번 이루지 못한 소원에 대한 집착은 언제까지나 꼬리를 물고

마음 밑바닥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며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짧디 짧은 꿈 앞에서는 자기네들의 현실은 아무래도 빛이 바래 누더기가 된 마음이 쓰라렸으며 어쩐지 인생도 이미 대충 반은 지난 듯한 느낌이 들어 이제부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앞날이 걱정되어 전될 수 없었다. 그렇다 해서 요즘의 현의 노고를 생각하면 지쳐 돌아오는 그를 붙들고 그러한 자기 마음속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다만 그의 애정을 믿고 그것에 매달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하려고 노력하는 일 뿐이었다. 참으로 외곶으로 쏘는 현의 애정을 생각할 때만이 그녀의 마음은 기쁨에 빛났으며 그럼으로만이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단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때의 아사미의 고통은 그야말로 자살적인 것이어서 무엇에 호되게 얻어맞은 것처럼 신음하고 몸부림치며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 모양으로 미쳐버릴 것 같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였다.

현이 외출한 사이에 배달된 한 통의 편지를 별뜻없이 개봉한 때서 온 것이었다. 누이동생이 현에게 보낸 것으로 부모들의 여전한 노여움을 알리고,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혼담을 부모들 사이에서 이미 정혼해 놓았으니 하루 속히 지금의 생활을 청산하고 집에 돌아와 달라는 뜻을 자세히 적고 있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던 그 당돌한 내용에 아사미는 놀라 부들부들 떨며 편지 속에 나타난 한 여성의 이름에 참을 수 없는 노여운 불길이 당장에 타올랐다.

현이 돌아왔을 때 아사미는 확 치밀어올라 잔뜩 쥐고 있던 편지를 내던졌다.

「배신자.」

현은 구겨질대로 구겨진 알맹이를 읽고 겨우 영문을 알자, 아니 아

현 거야 라고 가볍게 웃음으로 얼버무렸지만 아사미는 더욱더 격해져서 부들부들 떨기에 이르렀다.

「비겁한 자. 나 몰래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지. 사람을 짓이겨 놓고 제멋대로 결혼하려고, 악당 아니 악마야.」

「터무니 없는 오해다. 다들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알 바가 아냐. 그 혼담같은건 내겐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저짓말 거짓말쟁이. 여희가 누구예요. 모른다고 말 못할걸. 비밀을 지니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다니. 아휴 능글맞어.」

「냉정하게 하고 나를 믿어줘. 내 뜻에 어긋나게 무슨 짓을 한들 결국 쓸데없는 것이니까.」

「그래도 이러니저러니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 놓는군요. 아이구 분해.」

책상 위의 꽃병을 들어서 던진 것이 경대에 맞아 거울에 커다란 금이 가고 파편이 흩어졌다. 깨진 단지에서는 꽃이 튀어나오고 물이 흘러나와 다다미랑 책들을 적셨다. 깨진 거울에 비춰진 아사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몹시 일그러져 보였다.

「좋아요. 당신 소원대로 해줄테니. 헤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나도 전부터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흥분하지 말아줘. 불상 사납잖아.」

「아뇨. 난 조용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잘 안돼요. 첫째 주위가 나쁘고 악의와 모멸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도 당신까지도 그럴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감쪽같이 속았어. 아아 이걸 어째.」

「당신이야말로 묘한 말거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잖아. 어떻게든 말해봐. 슬픈 건 이쪽이야.」

항변할 방법이 없다고 알자, 현은 도리어 쌀쌀하게 안정되었다. 시간의 힘을 빌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는 동안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퍼부어도 묵묵부답하기로 했다. 완강하게 침묵으로 대해 오니 아사미는 점점 속이 타서 어찌할 바를 몰라 거칠게 이불을 뒤집어 쓰자 어깨 언저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한 방안에서 며칠이고 서로 아무 말도 걸지 않고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지는 했지만 두 사람 다 제각기 제 고집을 부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둘 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식당에 갈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따로따로였다. 현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무뚝뚝한 채 일찍 집을 나가면 아사미도 질세라 나팔 차림을 하고 정처없이 거리로 나간다. 사흘이고 나흘이고 두 사람은 끈기있게 그렇게 계속했다.

하루는 현이 드디어 어느 출판회사 편집부에 일자리가 정해져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사미와 입을 열어도 좋다고 한결음에 뛰어와 보니 그녀는 집을 비우고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날 안으로 집에 알리고 싶은 충동을 누를 길 없어 거리의 그럴만한 곳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단골 다방에 들렀을 때, 거기에 아사미는 앉아 있었다. 뜻밖에도 그녀 옆에 친구인 아오키의 모습이 눈에 띄자 현은 혹하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점연쩍고 부끄럽고 느닷없이 따귀를 얻어 맞았다는 느낌이었다. 하는 수없이 두뚱뚱뚱 걸어가 두 사람 앞자리에 앉아 두세마디 말을 걸었지만 아사미는 입을 꼭 다물고 대답하지 않고, 아오키는 아오키대로 역시 말 수 적게 그저 빙글빙글할 뿐이었다. 잠시 후 아사미는 발딱 일어나 아오키를 재촉하여 뛰도 돌아보지 않고 다방을 나가버렸다. 현은 욱하고 일어나 당장 쫓아가 두 사람을 그자리에 후려갈겨 쓰러트리려고 싶었으나 꼭 참고 쓰디쓴 담배에 불을 붙이고 손목시계의 초침의 움직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사미의 기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만큼 보아라하는 혜세이고 본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아파아트로 돌아와서도 현은 좀처럼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오만가지 생각이 가슴에 오고가서 신경을 싹둑싹둑 난도질 당하는 고통이었다. 아사미가 돌아올 때까지의 수시간이 지옥의 업고와도 같았다. 아무런 지름이 없는 그녀의 얼굴을 대했을 때 현은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있었다.

「나를 모욕했지 너. 그것으로 네 기분은 풀렸다는거냐. 매춘부하고 뭐가 다르게 있니.」

느닷없이 뺨을 얻어맞고 나서 아사미는 주춤주춤 비틀거리며 한 때는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을 쳐들었을 때 눈썹에 큰 눈물 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대단한 참견이군요. 무슨 짓을 하든 내 자유예요. 정말 이젠 헤어져요. 남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말아줘요.」

「헤어진다 헤어진다 하는게 네 유일한 탈대꾸냐. 그런 말투로 위협한다고 까딱이나 할 줄 알아.」

「위협같은 건 하지 않아요. 정말 이제 헤어질 때가 왔어요.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왔어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건 도리어 내 쪽이에요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아래 층에 내려가 봐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테니까요.」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조용히 말하고 난 아사미는 아아하고 무너지듯 쓰러져 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인지 좀더 납득할 수 있게 말해 봐.」

「.....오늘이 최후예요. 이젠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현이 거칠게 문을 열고 복도에 나선 바로 그때였다. 그가 내려가는 앞에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나더니 두 여자가 나타났다. 누이동생인 것을 알자 현은 우선 뜰끔하면서 쓰러진 여자가 등줄기를 휩 쓸고 지나갔다.

「요전 편지 읽었죠. 너무 집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쓰라고 하셨어요. 모두들 얼마나 걱정하는지 오늘은 여회씨를 모시고 왔어요. 어떨까하고 생각했지만 괜찮죠. 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누이는 좀 떨어져서 부끄러운 듯 비켜서 있는 같이 온 사람을 눈으로 가리키면서 현한테 웃음을 보냈지만 현은 그 쪽에는 눈도 돌리지 않고 소리쳤다.

「이 바보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니, 남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 걱정이나. 전방진 너석같으니.」

「아니 오빠. 너무해요. 여회씨 눈앞에서 무슨 실례의 말씨예요. 오빠야말로 제멋대로 아녜요. 이런 형편없는 생활에 언제까지나 집착하다니, 부모님이나 우리들 일도 조금은 생각해줘요.」 「말이라고 다 하면 되는 줄 아니. 너희들은 모두 한패가 되어 멋대로 트집을 잡는거야. 내게 상관말고 무슨 짓이든 하란 말야.」 「아이구 지독해라. 머리가 어떻게 된게 아녜요.」

「시끄러. 가! 가란말야.」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퍼붓고는 두 사람을 세워둔 채 방으로 돌아왔다.

「기가 막힌 것들 같으니. 뻔뻔하기 짝이 없단 말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아사미의 심정을 헤아려 밭살스럽게 혀를 찼다.

「용서해 줘, 아사미. 내가 잘못했어. 손찌검까지 하고. 당신 심정 잘 알아. 나를 믿어 주지만 하면 돼.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없어.」

물론 아사미는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려 해도 울음에 목이 메고 어깨가 떨려서 어쩔 수도 없는지 몰랐다. 그런 것을 현은 이제 납득이 간 줄로만 알고 폭풍은 자취없이 지나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그날밤 완전히 방심하고 방을 비운 것이 잘못이었던 모양 늦어서 얼근한 취기로 돌아와 보니 문의 열쇠 구멍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 방에는 아사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용 트렁크도 옷장 속의 옷들도 화장도구 류도 껑그러 없어서 방안은 어딘지 썰렁하게 텅 빈 느낌이었다. 적어 놓은 종이쪽 한 장 없는 안타까움에 옆방의 미도리상을 찾으니,

「어딘지 잠깐 여행을 떠난다고 오직 그말만 하고 있던데요.」  
라고 간단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현이 난처해 하는 것을 보고, 그럼 합의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미도리상은 도리어 의아스런 얼굴을 했을 정도였다.

(헤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이 헤어지는 수단이었다. 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에게는 아사미의 심정이 확연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러한 기질인 여자이기에 반드시 한번은 파탄이 올 것이라고 일찍부터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토록 어이없게 올 줄은 예측 못했다. 현은 자주 거리를 걸으면서 문득 혹시 아사미가 못견뎌 하고 있거나 않을까 하고 서둘러 돌아올 때의 일같은 것을 회상했다.

언젠가 호텔에서 묵었던 밤처럼 뜻밖에 어딘가 시중에 좀 숨어 있다가 아장아장 돌아올지도 모를 거라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사흘이 되고 닷새가 지나도 끝내 중무소식이었다. 한 주일째를 맞이했을 때 현은 차차 당황하게 되고 제 정신이 아닐만큼 괴로워했지만 달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두 주일이 훨씬 지난 무렵 겨우 한 장의 엽서가 날아들어 아사미는 고향인 구마모토에 돌아가 있다는 뜻을 알려 왔다. 작고 간단한 문면에는 감정도 표정도 없이 과연 그녀의 행동과 어울린다고 생각되었지만 어머니 밑에 돌아오자마자 병이 나 일주일이나

입원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은 놀랍고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대단하지는 않으니 여기까지 쫓아온다든가 하는 짓은 그만 뛴요. 곧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다 끝불전이니, 당신을 언젠들 잊겠어요. 다만 난 몹시 지쳐 있어요. 피로가 풀릴 때까지 당신을 안 만날 작정. —

어디까지나 기질이 강한 그녀였다. 현은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미소를 금할 수 없었다. 서양 영경위처럼 작게 새빨강계 타올라 귀엽게 노기를 품은 듯한 그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남을 간떨어지게 해놓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녀석야.)

환상을 향하여 씩부리면서 여러 가지 그녀와의 추억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꼭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서 현은 일터에도 열심히 나가 일했지만 며칠 후 단골 다방에서 아오끼를 만났을 때 아오끼는 여전히 빙글거리면서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다.

「말할 나위도 없이 오해 같은 건 안하겠지만 그날 하루 동무해 달라고, 아사미상이 굳게 약속시켜 달라고 해서. 자네한테는 미안했지만 이상한 기분이었네.」

「굉장한 역할이었잖아. 이제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말야.」

이제 와서는 현도 대법하게 웃으면서 응답할만큼 느긋한 기분이었다.

「아사미상 여간 단단하게 아냐. 사내 이상 기질이 강한 거야. 그만큼 믿음직할밖에.」

「너무 강해서 곤란할 지경이지 정말 거리끼는 게 많아.」

「아사미상을 차지했을 때 자네는 제일가는 행복한 친구였으니까 그러한 고생은 견딜 작정이었겠지.」

God (1982)  
HAPPY 4th...

## 라오코원의 後裔

무덤고 답답한 것은 오히려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려드는  
파리메야말로 역물이다.

편집 시간을 앞두고 수선스럽고 어지럽고 초조한 편집실의 오  
후를 파리메는 제 세상인 듯 들끓고 있다. 얼굴과 손을 간지르다  
가는 목탄지 위에다 불결한 배설을 하고 날아가곤 한다.

(추잡한 방안이 천재의 있을 환경이 못 되누나.)

삽화가 마란은 시간이 촉박하였음에도 그날 소설에 들어갈 삽  
화를 아직도 그리지 못한 채 파리와와 싸움에 정신이 없다. 천재  
로 자처하는 그에게 휘답답한 편집실은 버릇없기 짝없는 곳이다.

(천재를 괴롭히는 이놈의 추물—이놈의 미물—이놈의 속물...)

파리채 밑에서 한 마리 두 마리 거꾸러져 책상 위에 불 동안  
에 적은 시체의 무더기가 늘어간다. 마란이 중얼거리는 어루에는  
비단 파리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편집실 안에 응성  
거리는 천재 아닌 곳 미물들을 조롱하는 마음도 있다. 국장을 비  
롯해 과장, 부장, 주임, 기자, 사무원, 급사 등 흡사 파리메만큼  
이나 혼한 속물들도 마란의 비위에는 파리메와 고를 배 없는 평범  
하고 웅렬하고 하잘것 없는 존재로 밖에는 비치지 않는다. —조